

# 어머니 그리고 여성

본지는 올 한 해 동안 가족과 관련된 주제를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호의 “가족”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머니와 여성”을 다루었습니다. 아마 ‘가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어머니일 것입니다.

비율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첫 편지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회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라고 했습니다. 유훈노동이 중요하던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유훈적으로 강한 남성이 가부장적 사회를 이룩했습니다. 상황이 기록되던 유대 사회도 그러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8년에 미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여성의 권리를 알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가 지배적이어서 “그레도 아들”이라는 말도 있었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남아가 16.5%가 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도권이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로 넘어가고, 남아선호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서울국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를 주최한 (주)베베의 설문조사에서 “첫 아이로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수치가 68%로 아들을 선호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딸 선호도가 40대의 경우에는 27.9%에 불과했지만, 30대는 37.8%로, 그리고 20대는 38.9%로 높아져 앞으로 딸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





©2012 EDWELL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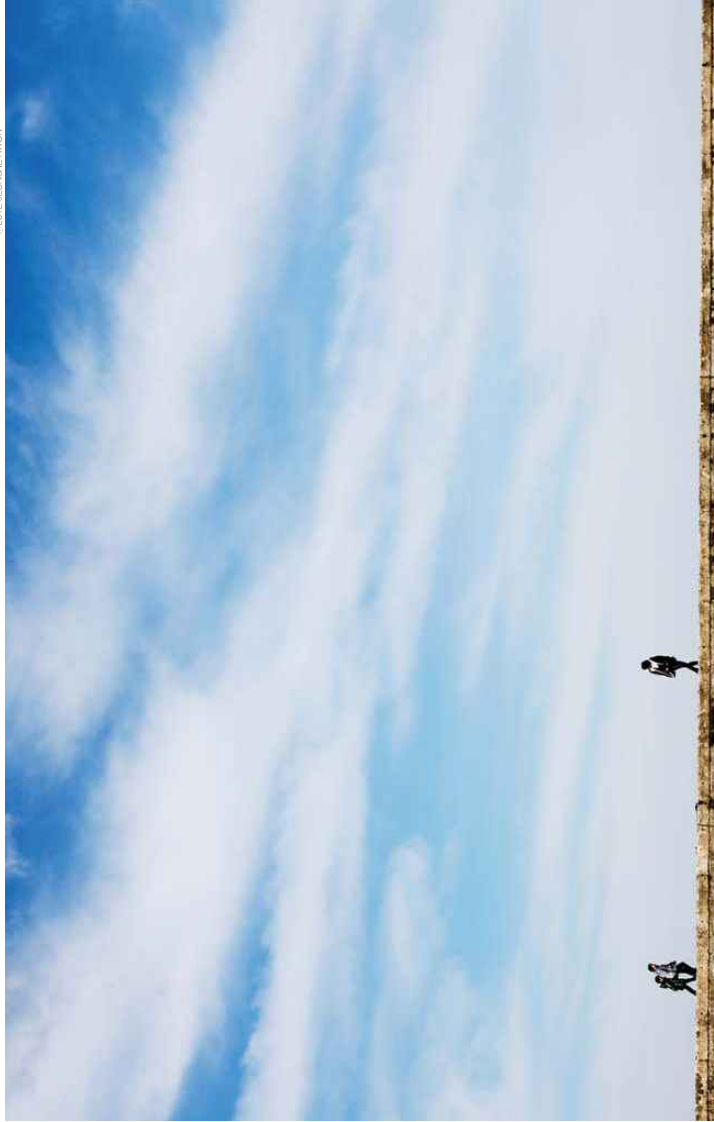
로 진감됩니다. 이미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성비에서도 남아선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못하는 중국에서도 이미 딸을 아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느 신부인과 의사가 산모에게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셨던 분이 있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20여 년 전엔 상상할 수 없던 현상입니다. 세간에서는 '딸'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또 아들만 둘이면 동메달도 아니고 목메달이란 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 아내의 금메달입니다. 아들과 딸을 둔 상태에서 43세에 딸을 낳았거든요. 딸 키우는 재미에 폭 빠진 부모를 '딸 바보'라고 하던데,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국사회에서 아들을 선호했던 것은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사후의 삶은 후손이 드리는 제사에 달려있다는 세계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승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는 장자상속제도가 없고, 막내딸이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크면 하나씩 출가하고 결국 남은 막내딸이 부모를 모시고 살고, 짐을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가장에서 실재라고 합니다.

현대인에게서 아들 선호사상이 없어진 것은 세계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합리주의 세계관의 영향으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현재의 삶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딸 키우는 재미가 더 클 것 같다.'(34%),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마음을 더 잘 알아줄 것 같다.'(33%), '아들보다 딸이 부모를 꼼꼼하게 더 잘 챙긴다.'(20%) 등이 딸을 더

©2012 EDWELL KWON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아들 집에 가면 눈치 보지만, 딸 집에 가면 편하다는 말을 합니다. '머리를 팔로,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바보는 '머느리의 남편을 아들로 착각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딸을 더 좋아하는 이유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아들은 자랄 때도 부모와 대화가 적은 반면에 딸은 대화도 자주 하고, 부부끼리만 사는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것도 딸이기 때문에 딸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들은 이제 자신도 자신의 행복추구에 대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으실 제 로움 다 있으시고, 기르실 제 밥맛으로 애쓰는 마음." 이런 어머니의 회상은 이제 옛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남녀 간 경제력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에서 여성차별이 여전히 있지만, 여성이 앞서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경우 매년 학과별 수석졸업자는 거의 대부분 여학생이 차지합니다. 어느 해에는 ROTC에게 주어진 상을 제외하고 졸업식장에서 수여한 모든 상을 여학생들이 차지한 해도 있습니다. 취업에서 여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우수해서 이제는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남학생들을 별도로 가점을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사도 압도적으로 여선생님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역자 사업에도 여성의 활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의 경우 여성 교역자가 총대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서 남녀평등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21세기에 어머니 또는 여성은 어떠한 위치로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크리스천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꾸며보았습니다. 6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정책전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총동맹회 실행위원장.

